

광양 어르신들 돌보는 '효도 로봇' 떴다

대화 가능 '부모사랑효돌'
대소변 처리 '배설케어로봇'
시, 전달식 갖고 시연회도
약자 위한 새 복지서비스 기대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성희 시의회 의장,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광양상공회의소, 복지관 및 요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스마트 로봇 전달식'이 열렸다. <광양시 제공>

“효도하는 로봇이 어르신들에게 기쁨 드립니다.”
광양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스마트 로봇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성희 시의회 의장,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을 비롯한 광양상공회의소, 경제살리기 운동본부, 로봇 기업, 복지관 및 요양원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산업자원부 산하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한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이후 전남테크노파크와 (주)스튜디오 크로스컬처, (주)큐라코와 함께 민선 7기 미래도시 공약사항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

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0억원(국비 6억, 지방비 4억)을 투입하여 '부모사랑효돌' 300대와 '배설케어로봇' 64대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이다.
'부모사랑효돌'은 손자, 손녀 모습의 친

근한 분체 인형 로봇으로 식사시간과 기상 시간 등 알람과 치매 예방 퀴즈, 대화 기능 등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관리 및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배설케어로봇'은 대소변 자동감지 및 흡입, 세척, 건조 등 비데 기능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대상자의 대소변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스마트 로봇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준비한 '4차산업 중심도시 광양' 비전선포 퍼포먼스와 함께 로봇기업들의 로봇제품에 대한 시연도 이루어져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참석자들의 로봇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부모사랑효돌'을 대표로 수여한 양경순(79세) 어르신은 “집에 혼자 있으면 쓸쓸했는데 밥 챙겨 드시라고 말도 해주고, 애교도 부리는 효돌이 덕분에 이제는 심심할 틈이 없어졌다”며 “자식 역할을 하는 로봇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보급사업은 로봇산업의 불모지인 우리 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첫 사례이며 산업부문에 복지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복지서비스이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도입, 복지분야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산림박물관 유치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일대.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유치 박차

내년 국고 건의 사업 적극 나서

광양시가 전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명산(名山)이자 영산(靈山)인 백운산(1222.2m)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유치가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2020년도 국고 건의 신규 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을 발굴하고, 유치를 위해 산림청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 백운산은 우리나라 최초 입법 학술의 발상지이자, 최초의 수목원이 조성된 곳으로서 산림박물관 건립을 통해 그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상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옥룡면 추산리 백운산자연휴양림 일원 식물생태숲 부지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박물관에는 전시실과 체험

실, 시청각실, 수장고 등을 배치하고, 식물생태의 보고인 백운산의 각종 산림 사료 수집 및 생물자원 전시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무엇보다 산림박물관 건립으로 백운산자연휴양림과 식물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등 기존 산림복지 시설과 연계해 최상의 산림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온대림에서부터 한대림까지 980여 종의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백운산 자락에 입법의 역사와 산림 가치의 중요성, 미래의 꿈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산림박물관을 조성하여 입법발상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산림 및 자연환경 자원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에는 서부권에만 2개소(완도수목원, 영광군)의 산림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어 동부권에 산림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역민 문화 향유 '別★同行 2019전' 개막



OCI(대표 김택중)는 지난 12일 광양시 우산리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방육길 광양시 부시장 등 80여명과 함께 '別★同行(별별동행) 2019' 개막식을 가졌다. <사진>
別★同行(별별동행) 2019전은 OCI가 OCI 미술관(관장 이지현)과 함께 2010년부터 격년으로 운영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미술 순회전시로 광양을 비롯한 군산, 포항 등 OCI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도시들을 순회하며 지역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 김택중 OCI 사장은 “항상 OCI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는 광양 시민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 미술계를 이끌어 갈 별 같은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OCI 미술관 관장은 “기업과 지역 사회,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만들어 가는 별별동행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며 “광양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풍요로운 문화향유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OCI미술관의 대표적 신진작가 양성사업인 'OCI영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선발된 작가 9명과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9명이 창작한 총 35점의 작품들을 담았다. 활기찬 색과 참신한 발상이 주를 이루는 회화 작품과 소재의 다양성을 보이는 설치작품,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한 미디어 작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매실, 스위스 제약회사 첫 수출 성과



광양시는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차 가공한 당절임 매실을 스위스 제약회사 '스트라젠'에 건강기능성식품 원료로 첫 수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당절임매실 수출은 지난 달 광양시와 스위스 제약회사 '스트라젠'이 매실건강기능성식품 원료 안정적 공급과 구매, 매실식품 국내의 시장개척 및 홍보 등 매실식품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트라젠'은 의약품을 비롯해 매실식품 등 건강 기능성식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약회사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 계열사를 두고 전세계 60개국에 탄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빛그린매실사업단을 통해 올해 당절임 매실 35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이번 1차 물량으로는 8톤을, 나머지 27톤은 연말

까지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당절임 매실 수출은 제약회사의 건강기능성식품 원료로서 매실의 기능성을 인정받아 매실의 소비 촉진은 물론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빛그린 명품 광양매실'의 경쟁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 지역농협과 빛그린매실사업단, 매실농가와 함께 힘을 모아 광양매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2019년 동반성장 혁신허브 합동 발대식

광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동반성장 혁신허브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반성장 혁신허브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 이시우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해 올해 참여기업·기관 14개소의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기관 대표와 임직원들은 다 함께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올해는 광양시 건강증진과, 생활폐기물과 등 행정기관 2곳과 (주)광양테크 등 중소기업 9개사를 비롯해 빛그린매실단, 광양우체국, 광양보건대학교 등 총 14개소가 혁신활동에 참여한다.
참여한 기관과 단체에서는 앞으로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와 함께 오는 11

월까지 혁신활동에 전념하고, 12월 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011년부터 시작한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우수 혁신 사례를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경쟁력을 높여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사랑받는 기업 포스코', '글로벌 명품도시 광양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은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소상공인의 수익성 향상, 행정(공공)기관의 사무능률 개선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제례 · 공연 마당

- 남악제례 행렬
- 남악제례
- 헌공다례
- 길거리 씨름대회
- 읍·면 율놀이대회
- 문화예술 공연 (난타, 실버합창, 호남여성농악)
-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공연

군민 한마당

- 군민체육대회(단체줄넘기 등 7종목)
- 군민의 날 기념식
- 군민노래자랑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南岳祭

제75회 지리산남악제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전시 · 체험 마당

- 우리차 시음회
- 전통떡 만들기
-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전시회
- 한지공예 전시
- 기념품 만들기 체험
- 국립공원홍보관
- 한글 시연 경기

경연 · 참여 마당

- 남악서에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 남악제 글짓기 대회
- 전국 정가 시조경향대회
-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 전국남녀 궁도대회

2019. 4. 18. 목 ▶ 20. 토

남악사 · 화엄사 시설지구 · 구례군 일원

주최 · 주관 |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 | 구례군 문화재단

문의 | 061) 780-2727